

전남, 고향사랑기부금 막판 모금 ‘총력전’

도·22개 시·군, 특산품·현금성 답례품…3년 연속 1위 박차
수도권·영남권 ‘찾아가는 현장 홍보’ 등 다각적 참여 유도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고향사랑기부금 3년 연속 1위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시 주어지는 기본 답례품 외에도 추가 답례품과 인터넷 쇼핑 쿠폰, 지역 특산품 제공을 통해 목표 금액 달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12월을 ‘고향사랑 기부’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모금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당장 전남도를 비롯 14개 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에 나섰다.

먼저 전남도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전남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쾌척한 타 시·도민에게 전남 22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중 하나와, 전남산 곱창김을 추가 증정한다.

영암군도 추첨을 통해 2000명에게 영암 특산품

인 고구마와 대봉감 말랭이 등 4개 품목을 추가로 증정하기로 했으며, 완도군도 전복 1kg(10미)와 유자향 디퓨저를 추가 제공한다.

골드바를 상품으로 내건 곳도 있다. 진도군은 10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골드바 1g을 추첨을 통해 증정하며 프랜차이즈 커피브랜드 이용권 1만원권(300명)도 제공하기로 했다.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답례품을 제공하는 곳도 많다. 여수시는 1만원 상당의 CU편의점 상품권을 추첨(500명)을 통해 제공하며, 목포시는 최대 5만원 짜리 네이버페이 쿠폰을 내걸었다.

또 보성·화순(네이버페이 1만원), 무안(배달의민족 1만원), 장성(네이버페이 최대 5만원) 등도 비교적 높은 호응이 예상되는 현금성 쿠폰을 답례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전남은 지난 2023년 143억원으로 모금액 전국 1위에 올랐고 2024년에도 전년보다 30% 증가한 총 187억원을 모으면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3년 연속 1위 달성을 위해 오는 5일 ‘제1회 도·시군 고향사랑 기부의 달 행사’를 추진한다.

행사는 “기부하고, 연말정산 혜택 챙기고, 고향도 사랑하자!”를 슬로건으로 전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경찰청, 소방본부 등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기부제 홍보를 위한 시·군 홍보관을 선보이고 현장 기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무안군을 제외한 21개 시·군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1위 수성을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 등 전국 28곳에서 ‘찾아가는 현장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또 내이게이션 어플과 지하철, 수도권 아파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남 고향사랑기부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7번의 추가 답례품 증정 이벤트를 통해 기부금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벌써 목표 기부금을 모두 채

운 지자체도 나왔다. 목포시는 지난달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목표액 5억원을 달성했다. 기부 건수는 4798건으로 집계됐다.

목포시는는 모금된 기부금을 참전유공자 나라사랑 장수방한도 지원 등 7개 주요 기업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위 달성을 위한 출향민과 타 시도민들의 큰 관심을 바란다”며 “12월 중 기부 시 다양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는 만큼 서둘러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10만원으로 1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50만원 기부시에는 33.6만원의 혜택이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자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지역	답례품
목포	네이버페이 쿠폰(5000원, 1만원, 5만원)
여수	CU 쿠폰(1만원)답례품 증량
순천	3만원 인기 답례품 추가 증정
나주	스타벅스 쿠폰(5000원)
담양	롯데리아 한우불고기 버거 콤보 쿠폰
고흥	고흥유자골 한우(20만원), 다이소 모바일 쿠폰(1만원)
보성	네이버페이 쿠폰(1만원)
화순	네이버페이 쿠폰(1만원)
영암	고구마, 대봉감 말랭이 등 4개 품목 추가 증정 한우, 돼지고기 등 24개 품목 답례품 증량
무안	배달의민족 쿠폰(1만원)
장성	네이버페이 쿠폰(5000원, 1만원, 5만원)
완도	전복 10미 1kg, 유자향 디퓨저
진도	골드바 1g(30만원), 스타벅스 쿠폰(1만원)

여자만·신안·무안 전국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해수부, 4곳 우선 지정…여자만 예타 사업 탄력 기대
1697억 규모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속도

정부가 여자만과 신안·무안을 전국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오른 ‘여자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예타 통과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여자만과 신안·무안, 충남 가로림만, 경북 호미반도 등 네 곳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양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공원으로 직접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지난해 10~12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정을 희망한 열 곳 중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보전 가치가 높은 네 곳을 우선 지정했다.

여자만은 철새 도래지 등 환경적 가치가 우수하고, 신안·무안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됐다는 점 등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는 배경이 됐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핵심보전 구역, 완충구역, 지속가능이용구역 등 세 단계로 나뉘어 관리된다.

해상 1km 범위의 완충구역에서는 해양환경 조사·연구 및 해역관리를 수행하고, 육상 500m 범

위의 지속가능이용구역에는 관찰시설과 보전관, 학습원 등 체험·교육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변화를 정밀하게 감시하기 위해 관측 시설을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내까지 확대하고, 전용 조사선과 첨단 수중드론 등을 활용한 정밀 관측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훼손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를 복원하고 맞춤형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지정으로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사업에 오른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여자만 해양보호구역을 체계적 관리하고 해양 생태·문화 거점을 조성해 해양생태계 보호 및 지역활성화에 목적으로 한다. 사업규모는 여자만 일원 41만 2210㎡로 총사업비는 1697억원으로 추정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만든다”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 개최

전남도는 최근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 주관한 행사에는 전남도, 전남도의회, 여성폭력방지시설, 시군 공무원, 경찰·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여성운동 헌신·봉사자의 뜻을 기리고 여성폭력 피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여성들의 릴레이 시작으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12명에게 전남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또 김수아 연합회장의 개회사,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의 기념사, 김미경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바리톤 이종현의 축하공연과 ‘폭력 없는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 주제 카드섹션 퍼포먼스도 진행돼 여성폭력 추방 공감대를 한층 높였다.

부대행사로 핸드드립 커피 제공, 플리마켓, 여

성폭력 방지기관 홍보부스(1366전남센터 등 6개 기관)가 운영돼 피해자 보호기관 간 협력 분위기를 더욱 확산했다. 특히 플리마켓 수익금 전액은 지원이 절실한 여성폭력피해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성폭력이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폭력 없는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전남도는 여성폭력 근절을 비롯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지원을 앞으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9년 12월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시행 이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전남도, 도민과 함께 ‘정책대동회 바란’ 개최

전남도는 지난달 29일 동부지역본부에서 ‘전남 타운홀미팅 정책대동회 바란’을 열고 신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골목상권 회복 등 도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사진>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사전 제안 접수자와 1차 타운홀 제안자를 포함해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9월 27일 전남도청에서 개최(200여 명 참석·52명 87건 제안)했던 1차 타운홀미팅의 연장선에서 현장 소통을 확대한 자리다.

행사에선 ▲농업·유통 미래전략 ▲전통식품 산

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확대 ▲골목상권 회복 ▲마을공동체 사업부서 일원화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지원 등 다양한 주제가 제안됐다.

전남도는 이날 나온 제안과 현장 의견을 정리해 각 실국에 전달하고 부서별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제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해 제도 반영도 추진한다.

강위원 부지사는 “평범한 사람의 위대한 제안이 지역을 대표하는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늘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창고 매 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